

작품설명서

작품명	도시를 잇는 오르내림
작품의도	구도심과 신도심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도시 맥락을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넘어, 지형의 고저 차를 이용해 도시의 에너지를 수렴하고 확산시키는 입체적 접점으로서의 광장을 제안합니다. 단순한 평면적 통로가 아닌 오르내림이라는 지형적 리듬을 통해 단절된 두 권역 사이의 경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로 형성되는 인프라와 과거에 형성되어있던 여가시설이 자연스럽게 교차하며 주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도시 네트워크의 구심점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작품설명	1. 지형적 변수를 통한 공간의 재구성 이 공간의 핵심은 움푹 파인 웅덩이와 솟아오른 언덕의 반복적인 교차로 이루어집니다. 하강의 공간인 웅덩이는 도시의 소음을 물리적으로 걸러내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응집의 장소이자 커뮤니티의 거점이 됩니다. 반대로 솟아오른 언덕은 시야를 확장하며 도시의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파하는 확산의 거점으로 기능합니다. 또 이 언덕이 형성 되며 언덕 아래에서는 자유롭게 방해가 되지 않는 보행의 흐름이, 언덕 위에서는 여유로운 머무름이 형성됩니다. 이 오르내림의 공간들 사이를 걸으며 보행자들은 여유와 흐름을 느낍니다. 2. 웅덩이 공간 움푹 파인 웅덩이 공간에서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연계한 야외 공연장,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의 강력한 기존 도로망을 유지하기 위한 만남의 광장, 로데오 거리를 향유하는 젊은 층들의 활동적인 에너지의 발산을 위한 보드장, 자전거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웅덩이 공간에서 활동적인 에너지를 공유하며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의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3. 언덕 공간 솟아오른 언덕 공간에서는 꼭대기에서 흘러내리며 퍼지는 확장의 공간이 구성되게 됩니다. 언덕 위에서는 트인 전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하고 언덕 아래는 광장 이외의 가로를 다니는 보행자들이 광장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머무름의 공간을 구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공간들은 병원과 상가, 행정 기관들의 성격과 연계해 작은 야외 도서관, 자전거 보관함 등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휴식의 공간이 가로를 향해 배치되어 쉼 없이 흘러가는 보행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도시에 여유를 갖게 됩니다. 4. 신구 도심의 능동적 연결점 나란하게 정렬된 신도심의 스마트시티 건물들과 골목골목의 공간을 간직한 구도심의 건물들은 이 오르내림의 과정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섞이게 됩니다. 광장은 두 도심의 서로 다른 밀도와 속도를 맞춰가며, 사람과 행위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능동적인 도시의 연결점으로 작동합니다.